

강의 내용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안내합니다.

수소양삼초 유주 맨 끝에 '交頰 至目銳眦'에서 交頰을 交眥으로 생각해 눈썹으로 잘못 설명했습니다. 頰은 눈썹이 아닌 뺨입니다.

‘交頰 至目銳眦’는 원론 p163에 나오는 ‘뺨에서 앞의 분지와 만나며 눈썹을 거쳐 목외자에 이르러’에 해당합니다만, 사실 그 직역은 ‘뺨에서 교차하여 목외자에 이른다’입니다. 즉, 유주 원문에는 ‘눈썹을 거친다’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.

다소 애매한 측면은 있으나 해당 표현은 사죽공과 동자료를 나누지 않고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